

제목: “왜 그렇게 울었을까?”

말씀: 누가복음 7장 36-50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만났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으면 그렇게 했는가를 생각하며 과연 나에게도 그러한 감격이 있는지 돌아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 1) 자신의 _____를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 2) 예수님을 _____했기 때문입니다.
- 3) 자신의 _____을 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김유정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난민)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 (뉴저지)
김인선/신유선 선교사	현지 교회, 사랑의 집짓기, 학교, 밥퍼 사역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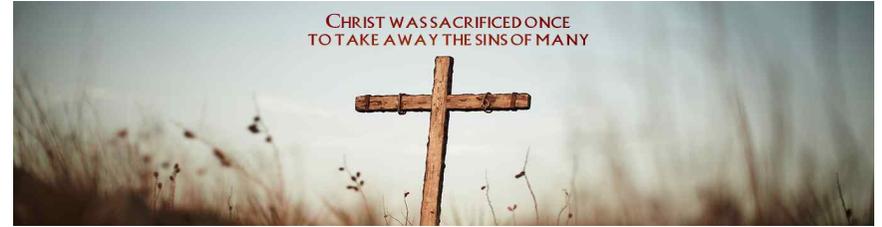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1-2절)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Hebrews 12: 1-2)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누가복음 7장 36-50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Luke 5: 36-50 신약 102 페이지 President
- 말씀 “왜 그렇게 울었을까?”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woman’s devotion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김성민 목사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당: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암호 Password)

지난 1월에 있었던 북한의 인터넷 문제가 미국 있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곤 것을 어제 알았다. 그 사람은 북한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기 때문에 북한의 인터넷 망을 공격하여 한 달에 두 번이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다. 북한이 한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된 일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북한이라는 한 나라를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암호를 풀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많은 암호가 있지 않은가? 그 암호가 털려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암호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암호가 아닌 여러 암호를 만들어 나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만든 암호가 문제가 있다. 그 이유는 전부 기억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 암호를 어디에다가 적어두기도 쉽지 않고 또한 한 가지 암호로 통일하면 쉽게 털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지난주에도 한동안 사용하지 않던 암호를 기억해 내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 결국에는 새로운 암호를 만들 수밖에 없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인가? 그것은 서로를 믿을 수 없고 또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세상은 이렇게 더 복잡하고 어렵게 돌아간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또한 나의 것을 숨기며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 우울해 지고 슬퍼지며 외로워지는 때에 우리는 살고 있다. 만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다 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다. 여기에서 서로가 마음을 열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망이 없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 되고 서로에게 마음을 활짝 열며 암호가 없는 세상을 누리는 것이다. 그 암호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골로새서 1장 26-27절)라고 말씀하신다.

세상에 있는 암호는 위험하다. 그리고 얼마 지나면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천국의 암호는 변하지 않는다. 천국은 결코 좁지 않다고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 그 거룩한 암호를 기억하고 말하면 세상의 일이 열리는 정도가 아니라 천국의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에 생명이시고 영원하시며 지금도 동행하여 주시는 위로이시다. 세상의 암호는 잊고 새로이 만들어 잊지않되 잊어도 예수만이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늘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

지난주 새로운 암호를 또 만들었다. 실은 매달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기억력의 문제도 있는 것 같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매주 예배에 결석하지 말고 열심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간단히 친교의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북아프리카 사람들)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김인선 선교사:	니카라과의 사역을 위하여 (교회 개척과 학교)

3. 새벽 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다시 시작 됩니다.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생명의 삶

2022년 2월 생명의 삶이 도착했습니다. 한권씩 받아 가셔서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5.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